

정신간호학 실습이 간호대학생의 정신 장애인에 대한 태도, 사회적 거리감,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조영희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Effects of Mental health clinical practice on the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social distance, psychiatry nurses' image of Nursing Students

Young-Hee Cho
Professor, Dept. of Nursing, Kwangju Women'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정신간호학 실습이 간호대학생의 정신 장애인에 대한 태도, 사회적 거리감,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G시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 162명을 대상으로 정신간호학 실습 전·후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2월부터 6월까지였다. 정신간호학 실습 전·후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거리감($t=-4.29, p<.001$), 정신간호사 이미지($t=-5.89, p<.001$)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정신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1.02, p=.305$).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 거리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지만($r=.316, p<.001$), 정신간호사 이미지와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043, p=.589$), 사회적 거리감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r=.316, p<.001$), 정신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r=.378, p<.001$)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이며 교육적인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학 교육과 실습지도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정신간호학 실습, 정신 장애인에 대한 태도, 사회적 거리감, 정신간호사 이미지, 간호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mental clinical practice on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social distance, psychiatry nurses' image in nursing students. After experiencing mental health clinical practices, social distance($t=-4.29, p<.001$), psychiatry nurses' image($t=-5.89, p<.001$) are increased, but their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t=-1.02, p=.305$) is not chang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ere found between social distance and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r=.316, p<.001$), psychiatry nurses' image($r=.378, p<.001$). Based on the outcome of this stud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further psychiatry nursing teaching curriculum and psychiatry clinical practice program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Mental Health Clinical Practice,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Social Distance, Psychiatry Nurses' Image, Nursing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의 목표는 간호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함으로써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전문가를 배출하는

*This study was conducted by research funds from Kwangju Women's University in 2018.

*Corresponding Author : Young-Hee Cho (choyh@kwu.ac.kr)

Received August 10, 2018

Accepted November 20, 2018

Revised September 20, 2018

Published November 20, 2018

데 있다[1]. 특히 간호교육과정 중 임상실습 교육은 예비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실제적인 지식과 기술 뿐 아니라 가치관, 태도, 역할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간호교육의 핵심적이며 필수적인 과정이다[2]. 임상실습의 여러 분야 중 정신간호학 실습은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학생들이 실습기간을 제외하고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습기간을 통한 경험과 교육의 영향력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3]. 이와 같은 이유로 제한된 짧은 기간 동안의 정신간호학 실습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의 효과를 이끌어 내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구성원이 가지는 정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 등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로의 복귀와 적응을 힘들게 만들어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4]. 특히 대상자와 많은 시간동안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정신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치료와 재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5]. 이러한 태도는 성장과정에서 학습된 행동으로 개인적 경험, 교육수준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6], 이론적인 교육만으로는 태도와 행동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정신간호학 실습을 통한 간호대학생의 정신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사회적 거리감은 다양한 대상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관계를 개인적으로 허용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한 개인이 특정한 집단 또는 구성원에게 갖고 있는 주관적 느낌을 의미한다[7]. 특히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정신질환자들과 상호작용이나 교류를 할 때 어느 정도로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8].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정신장애인과 접촉 경험, 접촉 빈도 등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9], 정신간호학실습을 통해 사회적 거리감에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직업에 대한 이미지는 개인의 경험, 직접적인 접촉 등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대한 이미지는 전문직의 발전성,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의 변화를 경험하며 이는 향후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나 간호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10]. 특히 정신간호학 실습기간을 통해 접하게 되는 간호사에 대한 경험, 업무의 이해 등을 통해 변화되거나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정신간호사의 이미지는 정신보건분야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와 개인의 미래의 진로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 따라서 정신간호학 실습이라는 기회를 통해 올바른 정신간호사 이미지를 확립하는 것은 정신간호학 실습을 통해 성취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정신 간호분야의 제한된 접근성에 따라 간호대학생들은 실습기간을 통해서 처음 대상자 접촉경험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실습기간은 정신 장애인에 가까이에서 접촉하고 정신간호사의 업무영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정신간호학실습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및 편견의 변화에 대한 연구[12]와 실습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13] 등이 시도되었으나 실습 전, 후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정신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정신간호사 이미지 등의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정신간호학 실습 전 -후 다양한 변인들의 변화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현장실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연구이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신간호학 교육과 실습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의 정신간호학 실습 전, 후 정신 장애인에 대한 태도, 사회적 거리감과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차이를 파악하고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정신간호학 실습은 정신과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2주간의 실습을 의미한다. 실습기간동안 간호대학생은 정신과 병동 안에서 다양한 정신치료프로그램 참여 및 보조, 간호중재 활동보조, 치료적 의사소통의 적용 등을 통해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분석, 실습일지를 매일 작성하게 되고, 주 1회 집담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치료적 의사소통기술을 분석 및 성찰, 대상자별 정신질환

의 특성에 대한 연구, 정신간호 증재술에 대해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1041485-201608-HR-001-05)을 받은 후 G시 2개 간호학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대학 정신간호학 교수의 협조를 구한 후 시행되었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와 함께 수집된 자료의 비밀 유지와 익명성 보장에 대해 연구자가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하여 동의서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2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였으며 사전 자료수집은 정신간호학 실습 직전에 시행하였으며 사후 자료수집은 실습 후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수는 G*Power프로그램 3.1.9.2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5, 검정력 0.95의 수준에서 paired t-test와 correlation을 위한 최소 표본 수 134명으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165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자료 3부를 제외한 162부를 최종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Taylor와 Dear (1981)의 Community Attitude Toward the Mentally Ill (CAMI)를 Lee 등[1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0문항, 5점 척도로, 4개의 하부요인 ‘권위주의’, ‘자비심’, ‘사회생활제한’, ‘지역정신보건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4개의 하위 척도는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5개의 긍정적 태도와 5개의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Lee 등[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권위주의 .57, 자비심 .64, 사회생활제한 .72, 지역정신보건개념 .84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78이었다.

2.3.2 사회적 거리감

Wesite[15]의 측정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한 Kim[16]의 도구를 Lee[8]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2문항, 5점 척도로 2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의 하부요인은 ‘신체적 거리감’과 ‘대

인적 거리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은 높고, 따라서 정신장애인과의 거리감을 멀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역문항은 역산하였다. Lee[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4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6이었다.

2.3.3 정신간호사 이미지

Cho 등[17]의 Psychiatric Nurses' Image Scale (PSYNIS)을 사용하였다. PSYNIS는 총 28문항, 5점 척도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4개의 하부요인인 ‘전문적 특성’, ‘업무적 특성’, ‘조직적 특성’, ‘개인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Cho 등[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93이었다.

2.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사회적 거리감, 정신간호사 이미지는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정신간호학 실습 전, 후 변수의 차이는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으로 분석하였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2.56±4.74였고, 성별은 과 특성상 남학생 24(14.8%), 여학생 138(85.2%)으로 여학생이 대부분이었으며, 종교는 ‘유’ 70(43.2%), ‘무’ 92(56.8%)로 종교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았고, 학업성취도에 대해서는 ‘상’ 30(18.5%), ‘중’ 94(58.0%), ‘하’ 38(23.5%)로 응답하였다. 가족 중 의료인은 ‘있다’ 20(12.3%), ‘없다’ 38(87.7%)로 나타났고, 전공에 대한 만족 정도는 ‘보통’ 96(59.3%), ‘만족’ 60(37.0%), ‘불만족’ 6(3.7%)순이었다. 정신과 근무를 희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모르겠다’ 92(56.8%), ‘원하지 않는다’ 36(22.2%), ‘원한다’ 34(21.0%)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16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Age(year)		22.56±4.74
Gender	Male	24(14.8%)
	Female	138(85.2%)
Religion	Yes	70(43.2%)
	No	92(56.8%)
School achievement	Well	30(18.5%)
	Average	94(58.0%)
	Poor	38(23.5%)
Medical workers in family members	Yes	20(12.3%)
	No	142(87.7%)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60(37.0%)
	Common	96(59.3%)
	Dissatisfied	6(3.7%)
Want to work for psychiatric part	Want	34(21.0%)
	Don't know	92(56.8%)
	Not want	36(22.2%)

3.2 실습 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사회적 거리감,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성별($t=2.260, p=.025$), 학업성적($F=8.672, p<.001$), 가족 중 의료인($t=3.392, p=.001$), 전공만족도($F=3.578, p=.030$), 정신과근무희망여부($F=4.690, p=.010$)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이 상위권보다, 전공만족도가 보통이며, 정신과 근무를 원한다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대상자 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종교에 따라 ($t=3.180, p=.002$), 학업성적에 따라($F=5.872, p=.003$), 전공만족도에 따라($F=6.671, p=.002$), 정신과 근무 희망여부에 따라($F=17.945, p<.001$)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종교가 있는, 학업성적이 중인, 전공만족도가 높은, 정신과 근무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간호사 이미지는 성별($t=2.433, p=.016$), 종교($t=3.105, p=.002$), 학업성적($F=23.359, p<.001$), 전공만족도($F=4.052, p=.019$), 정신과 근무희망에 따라($F=5.014, p=.008$)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이, 종교가 있는, 학업성적이 상인, 전공만족도가 높은, 정신과 근무를 희망할수록 정신간호사 이미지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3.3 정신간호학 실습 전,후 변수 차이 검증

실습 전·후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실습 전 3.06 ± 0.16 , 실습 후 3.08 ± 0.1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02, p=.305$). 그러나 하부적인 요인 중 권위주의($t=2.25, p=.025$)와 사회생활제한($t=-2.21, p=.028$)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습 후 권위주의와 지역 사회제한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아졌다. 사회적 거리감은 3.48 ± 0.63 에서 3.74 ± 0.48 로 0.26점 상승하여 통계적

Table 2. Difference of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social distance, psychiatry nurses' image.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62)

Characteristics	Categories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Social distance		Psychiatry nurses' imag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Gender	Male	3.13(0.23)	2.260(.025)	3.70(0.59)	1.926(.056)	4.26(0.36)	2.433(.016)
	Female	3.50(0.15)		3.44(0.62)		3.99(0.50)	
Religion	Yes	3.07(0.12)	0.490(.625)	3.65(0.41)	3.180(.002)	4.17(0.43)	3.105(.002)
	No	3.06(0.19)		3.34(0.72)		3.93(0.51)	
School achievement	Well ^a	2.98(0.86)	8.672(<.001) a<c	3.51(0.39)	5.872(.003) b>c	4.50(.026)	23.359(<.001) a>b,c
	Average ^b	3.06(0.12)		3.59(0.46)		3.97(0.44)	
	Poor ^c	3.14(0.25)		3.18(0.97)		3.81(0.52)	
Medical workers in family members	Yes	3.18(0.17)	3.392(.001)	3.42(0.17)	-0.427(.670)	4.05(0.31)	0.138(.891)
	No	3.05(0.16)		3.48(0.67)		4.03(0.51)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a	3.02(0.09)	3.578(0.30) a<b	3.70(0.46)	6.671(.002) a>b,c	4.16(0.55)	4.052(.019) (a>b)
	Common ^b	3.09(0.19)		3.36(0.68)		3.96(0.44)	
	Dissatisfied ^c	3.05(0.16)		3.13(0.54)		3.77(0.30)	
Want to work for psychiatric part	Want	3.11(0.21)	4.690(.010) a,b>c	3.76(0.57)	17.945(<.001)	4.018(0.26)	5.014(.008)
	Don't know	3.07(0.15)		3.56(0.46)		4.05(0.52)	
	Not want ^c	2.99(0.14)		3.00(0.78)		3.83(0.53)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29, p<.001$). 즉 사회적 거리감은 실습 후 더 감소하였다. 하부영역은 신체적 거리($t=-4.39, p<.001$)와 대인거리($t=-3.79,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간호사 이미지는 실습 전 4.03점에서 4.31로 0.28점 높아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5.89, p<.001$) 이는 실습을 통해 정신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하부영역은 전문적 영역($t=-5.97, p<.001$), 업무적 영역($t=-3.98, p<.001$), 조직적 영역($t=-6.29, p<.001$), 개인적 영역($t=-4.74,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The difference of pre-post test between the variables (N= 162)

Variables	Pre-test	Post-test	t	p
	M(SD)	M(SD)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3.06(0.16)	3.08(0.15)	-1.02	.305
Authoritarianism	3.70(0.46)	3.79(0.40)	2.25	.025
Benevolence	2.33(0.35)	2.39(0.38)	-1.54	.125
Social restrictiveness	3.63(0.48)	3.75(0.52)	-2.21	.028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2.50(0.43)	2.49(0.38)	0.19	.843
Social distance	3.48(0.63)	3.74(0.48)	-4.29	<.001
Physical distance	3.57(0.68)	3.85(0.54)	-4.39	<.001
Interpersonal distance	3.39(0.66)	3.63(0.49)	-3.79	<.001
Psychiatry nurses' image.	4.03(0.49)	4.31(0.52)	-5.89	<.001
Professionalism	3.97(0.51)	4.23(0.51)	-5.97	<.001
Activism	4.17(0.58)	4.40(0.58)	-3.98	<.001
Coordination	4.00(0.52)	4.35(0.58)	-6.29	<.001
Personalism	3.59(0.74)	4.30(0.64)	-4.74	<.001

3.4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사회적 거리감,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 거리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r=.316, p<.001$), 정신간호사 이미지와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043, p=.589$). 사회적 거리감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와($r=.316, p<.001$), 정신간호사에 대한 이미지($r=.378, p<.001$)와 모두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 of variables (N=162)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i>r(p)</i>	Social distance <i>r(p)</i>	Psychiatry nurses' image. <i>r(p)</i>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1		
Social distance	.316*(<.001)	1	
Psychiatry nurses' image.	.043* (.589)	.378*(<.001)	1

4. 논의

본 연구는 정신간호학 실습 전, 후에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사회적 거리감,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변화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정신간호교육과 실습에서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는 실습 전·후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실습 전 3.06, 실습 후 3.08점으로 근소한 차이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Choi등의 연구[18]에서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보건 실습 전 3.84점, 실습 후 3.92점으로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그러나 하부적인 요인 중 권위주의와 사회생활제한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습 후 권위주의와 사회생활제한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Noh[1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태도란 단시간내에 변화되기 어렵고 지속적인 교육과 경험에 의해 서서히 형성되기 때문에 2주라는 짧은 실습기간 안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신간호학 실습이라는 기회를 통해 평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정신장애인을 직접 접해보는 경험을 갖게 됨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고 그들의 행동조절능력과 사회생활 및 사회적 기능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사회적 접촉을 유지 할 필요에 대해 권위주의적 태도와 사회생활 제한에 대한 태도는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 주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비심과 지역정신보건 개념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못한 결과는 자비심은 학습으로 인해 짧은시간 내에 변화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일반인 그룹에 비해 건강전문가의 자비심은 오히려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이다[20].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전인간호를 제공해야하는 전문직이다. 따라서 자비심과 공감능력 등 대상자를 이해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부과정에서 강의와 실습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보건개념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3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정신건강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적인 개입, 간호제공, 관리 내용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정신보건의 개념은 병원 중심의 치료적인 개념에서 예방, 조기발견, 관리, 재활 위주의 지역사회차원에서의 정신건강의 개념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습시간과 실습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만 실습지로 지정하고 있거나 또는 병원과 지역정신보건 둘 중 한 곳에서만 무작위로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도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급성기 대상자와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센터의 관리를 받고 있는 만성, 또는 회복기의 대상자의 예후와 증상 등은 매우 차이가 크고 그 치료법과 간호의 제공 내용, 접근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들은 정신간호학 실습 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 실습지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들이 실습과정에서 병원과 지역사회정신센터의 실습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실습지와 실습기회를 안배함으로써 병원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에서 간호사의 치료적 역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습 전·후 사회적 거리감은 3.48점에서 3.74점으로 0.26점 상승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습을 경험 한 후 사회적 거리감이 감소하였으며 하부영역에서는 신체적 거리와 대인거리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정신장애인의 역할놀이 이후 사회적 거리감이 감소됨을 보고한 Kang[2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사회적 거리감은 정신장애인의 접촉경험이 있고 빈도가 많을 수록, 접촉시 좋은 인상을 받았을 경우 낮아지기 때문에, 간호대학생들이 정신간호학 실습을 통해 평소에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정신장애인들과 가까이에서 접촉경험을 갖게 됨으로 인해 그들에 대한 거리감이 좁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의 경험이 긍정적이고

자주 발생할수록 사회적 거리감은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실습기간 외에도 자원봉사나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자주 접촉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는데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정신간호사 이미지는 실습 전 4.03점에서 4.31로 0.28점 높아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이는 실습을 통해 정신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며 하부영역에서는 전문적 영역, 업무적 영역, 조직적 영역, 개인적 영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가 없어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첫 임상실습 후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상승했다고 보고 한 연구와[22]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미래의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간호대학생들이 교육 및 임상실습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실무역량에도 영향을 미치며 향후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실습을 통해 정신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현상이며 정신간호사들과 프리셉터의 롤 모델로서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개인적 영역이 3.59점에서 4.30으로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타 임상분야와는 차별화되는 자기 자신을 치료의 도구로 접촉하게 되는 업무가 많은 정신간호분야의 특성상 학생들이 정신간호사의 인간적이고 공감을 표현하는 개인적인 면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임상실습경험에 따라 졸업 후 자신의 희망부서 또는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정신간호학 실습을 통해 정신간호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정신보건분야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짐으로써 향후 진로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정신보건 관련분야에 도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변수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사회적 거리감은 낮아지며($r=.316, p<.001$), 정신간호사 이미지와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43, p=.589$). 그러나 사회적 거리감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r=.316, p<.001$), 정신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r=.378, p<.001$) 나타나 사회적 거리감을 좁혀갈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도 변화될 수 있으며 정

신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간호대학의 교육과정 중 간호대학생은 많은 임상간호 실습분야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신간호실습은 접근성과 관련하여 제한된 실습시간을 통해서만 대상자의 접촉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실습경험이 총체적인 전인간호의 제공에 필요한 교육과 이론의 적용면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적 가치가 있으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의 형성하고 사회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간호의 실무분야는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따라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어, 우수하고 숙련된 요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이 갖게 되는 긍정적인 정신간호사의 이미지는 정신보건분야에 대한 취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미래에 우수하고 숙련된 정신간호요원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14].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간호학 실습 전, 후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사회적 거리감, 정신간호사 이미지 등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정신간호학 실습의 효과를 확인하고 더욱 효과적인 실습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정신간호학 실습이 처음인 3학년 학생들이었으며 정신간호학 실습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지만 사회적 거리감과 정신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제한된 기간의 정신간호학 실습기간 중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과 연구가 더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지역의 1개대학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반복연구를 통한 일반화가 필요함을 제언하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M. H. Nam & H. O. Kim. (2016). Relations between

Clinical practice Emotional lab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f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 263-273.

<http://dx.doi.org/10.1400/JDC.2016.14.1.263>

- [2] H. S. Lee & E. J. Kim. (2008). The Comparison of Stress Cop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the Grade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4(1), 5-13.
- [3] Y. H. Cho. (2016). Effects of Empathy, Communication Ability and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on Psychiatric Nurses's Imag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5(4), 294-302.
<https://doi.org/10.12934/jkpmhn.2016.25.4.294>
- [4] S. P. Hinshaw & A. Stier. (2008). Stigma as related to Mental Disorders.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4, 367-393.
<http://dx.doi.org/10.1146/annurev.clinpsy.4.022007>
- [5] S. Yang & S. J. Yu. (2001). The Stigma toward the Mental Illness and Mentally Ill Patients among Nursing Students between before and after Learning Psychiatric-Mental Health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0(3), 421-435.
- [6] G. Wolff. S. Pathare & T. Craig. (1996). Community Attitudes to Mental Illnes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8, 183-191.
- [7] H. Lauder. P. Brown & A. H. Halsey. (2004). Sociology and Political Arithmetic: Some Principles of a New Policy Science.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5(1), 3-22.
- [8] S. Y. Lee.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Social Distance and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Disabled Individuals [master's thesis]*. Daegu: Keimyung University.
- [9] G. S. Kim. (2012). Factors Affecting of Social Distance toward Multiracial Socie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4), 2039-2051.
- [10] S. A. Gulzar. R. Karmaliani. S. Vertejee. K. Khan. Y. Amarsi & J. Macfarlane. (2015). 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Leader's Perceptions of Professional Empowerment amongst Pakistani Nurse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7(3), 247-251.
<http://dx.doi.org/10.5958/0974-9357.2015.00174.9>
- [11] Y. H. Cho. (2014). Relationship of Psychiatric Nurses' Image, Job Satisfaction and Assertiveness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3(3),135-143.

- <http://dx.doi.org/10.12934/jkpmhn.2014.23.3.135>
- [12] Y. H. Chung, J. S. Choe, E. H. Kim, J. S. Kim & H. K. Choi. (2008). A Study on the Stigma hel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against Mental Illness and Mentally Ill Pati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Issues*, 9(2), 195-210.
- [13] M. H. Kim. (2014). Phenomenological Research of Lived-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um in Psychiatric Department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15(1), 13-23.
- [14] J. H. Lee, C. S. Lee, T. Y. Kwang, K. S. Hahn & Y. M. Lee. (1996). A Survey for Community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Ill in Suseo-Irwon Area. *The Yong-in Psychiatry Institute*, 3(2), 188-202.
- [15] F. R. Westie. (1952). Negro-White Status Differentials and Social Dista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7(5), 550-558.
- [16] M. O. Kim. (2003). A study of Social Distance on people with Disability and Self Concepts of Social Work Students. *Mental Health & Social Work*, 15, 138-167.
- [17] Y. H. Cho, Y. R. Kweon & B. Jo. (2015).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Psychiatric Nurses' Image Scale (PSYN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4(4), 320-329. <https://doi.org/10.7739/jkafn.2015.22.3.328>
- [18] M. O. Choi & E. J. Park. (2007). A study on Change in Attitudes and Prejudice toward the Mentally Ill following Metal Health Practice for Social Work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fare and health Education*, 3(1), 1-39.
- [19] C. H. Noh. (2000). Coparative Study on the Cognition and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9(2), 145-155.
- [20] L. M. Meyer. (1973). Comparison of Attitudes toward Mental Patients of Junior and Senior Nursing Students and their University Peers. *Nursing Research*, 22(3), 242-245.
- [21] M. O. Kang. (2015). The Effect of Role-playing Experience as Mentally-disabled Clients on the Emotional Attitude and Social Distance toward Mentally-disabled for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drama*, 18(2), 17-30.
- [22] H. S. Kang & W. O. Kim. (2002). Changes in the Image of the Nurse for Student Nurse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9(3), 379-387.

조영희(Young-Hee Cho)

[정회원]



- 2014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4년 9월 ~ 2016년 2월 : 기독교간호대학교 조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윤리교육, 임상교육, 도구개발, 건강증진
- E-Mail : choyh@kwu.ac.kr